

2014년 국가직 한국사 문제 해설

* 시대사별 문항 분석

시대	역사 인식	선사	고대	중세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일제 강점기	현대
문항수		1	4	4	2	5		2	2

* 분류사별 문항 분석

분류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비고
문항수	10	2	4	3	구석기 유적 1

* 유형별 문항 분석

유형	사료 및 자료 제시형	단순 질문형
문항수	12	8

* 총평 *

난이도는 중의 수준이었다. 2013년 국가직 문제에 비해서는 다소 까다로웠다. 2013년에 비하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번(구석기 문제), 8번(고구려 사회모습), 9번(고려 형률제도), 13번(조선, 일본, 중국 인구 비교), 15번(삼별초 사료), 17번(조선후기 천주교) 정도가 지엽적이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지엽적이고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하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소한 사료나 자료일지라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설서의 해설 부분을 꼼꼼히 읽으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시대사별 문항을 분석해보면, 2013년 국가직·지방직 문제들과 비교해 전근대 부분의 비중이 늘었다. 2013년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14:6이었는데, 이번 국가직에서는 16:4로 전근대의 비중이 늘었다.

분류사별 문항을 분석해보면 정치사 > 사회사 > 문화사 > 경제사 순으로 출제되었다. 예년에 비하여 사회사의 비중이 늘었다. 사료가 까다롭게 출제되는 파트는 사회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별 문항을 분석해보면 2013년 국가직·지방직에서 자료·사료제시형 문제들이 대폭 늘어났는데(국가직 13문항, 지방직 19문항), 자료·사료제시형의 비중이 12문제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 자료·사료도 그래프가 제시됨으로써 다양해졌다.

* 학습대책 *

최대한 다양한 자료·사료를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료와 사료를 보고 유추·추론하는 훈련도 하여 문제 적응력을 높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내용이 주가 되었다. 이런 시험의 대비책으로는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하면서 자료나 사료에 대한 유추·추론 훈련을 한다면 보다 적은 암기로 보다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삼국시대의 금석문은?

-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東夷寐錦)’ 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 ① 광개토왕비
- ② 집안고구려비
- ③ 중원고구려비
- ④ 영일냉수리비

정답 및 해설> ③

제시된 사료는 장수왕이 건립한 중원고구려비의 내용이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신라왕을 ‘동이매금’ 이라고 기록하여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천하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건립처에 사용할 것을 내렸다.”, “고구려 대왕(장수왕)은 태자공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가 이곳에 머물도록 하였다.” 등의 기록이 있다.

2.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心性)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見性悟道)에 있었다.

- ①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 ②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 ③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④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2. 정답 : ②

정답 및 해설> 불립문자, 견성오도 등으로 보아 선종에 관한 내용이다.

선종은 신라 통일 전후에 전래되었으나(선덕여왕 때 법랑), 교종의 위세에 눌려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신라 하대에 지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지방민의 민심을 얻으려는 호족 세력에게 수용되어 지방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으며 신라 하대 대표적인 반신라 세력으로 역할하였다.

- ① 교종에 관한 내용이다.
- ③ 흥덕왕은 실상산파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④ 인도에서 소승불교 계열인 율종 관계의 불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번역까지 한 승려는 백제 성왕 때의 경익이다. 신라와 상관없으며 질문의 의도로 보더라도 인도에 가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교종 계열의 승려들이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①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놓았다.
- ② 『임하경륜』을 통해서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줄 것을 주장하였다.
- ③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④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②

제시된 사료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지전설 등을 주장하였던 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 주장이다. 중상주의 실학자였던 홍대용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임하경륜』에서 무위도식하는 선비들의 생산 활동 중사를 역설하였고, 균전제를 통해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할 것과 병농일치의 군대 조직을 제안하였다. cf>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서는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① 한백경의 저서로 조선후기 고증적이고 실증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한 역사 지리서이다.
- ③ 이종휘의 『동사(東史)』나 허목의 『동사(東事)』는 모두 역사서로 자연환경과 풍속 등의 지리서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다.
- ④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이고,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백리척의 축적 지도이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령에 이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 ②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에 참전시켰다.
- ③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을 준비하였다.
- ④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④

한국광복군은 조선의용대의 일부(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와 연합한다. 조선의용군은 화북지방(연안)의 조선독립동맹의 군대이다.

- ① 이청천은 지청천의 다른 이름이다. 지청천의 이름은 3개이다. 본래 이름은 지대형이다. 그러나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인 장교로 있다가 망명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숨기고 독립운동을 하여야 했다. 그래서 이름을 푸른 하늘의 공평무사를 의미하는 청천(靑天)으로 고쳤다. 성도 지씨(池氏)는 흔치 않아 남의 눈에 띄기 쉬우므로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 이씨로 고쳤다. 지대형, 지청천, 이청천 모두 같은 인물이다.
- ②, ③은 모두 한국광복군의 활동이다.

5. 8·15 광복 직후에 결성된 정당의 중심 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ㄴ.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ㄷ.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 | | ㄱ | ㄴ | ㄷ |
|---|-------|-------|-------|
| ① | 조선인민당 | 한국민주당 | 한국독립당 |
| ② | 조선신민당 | 민족혁명당 | 한국독립당 |
| ③ | 조선신민당 | 한국민주당 | 국민당 |
| ④ | 조선인민당 | 한국민주당 | 국민당 |

정답 및 해설> ④

1. 조선인민당 :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이후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러나 우익 인사들의 외면과 미군정의 부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후 여운형 등 중도 좌파 세력은 조선인민당을 만들고 미·소의 원조와 민족 국가 건설을 노선으로 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2. 한국민주당 :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불참한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조직한 정당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중경 임시정부 지지를 명분으로 조직하였다.
3. 국민당 : 조선국민당을 의미한다. 안재홍, 김규식 등 중도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각 계급의 단결을 강조하는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하였고 임정을 지지하였다.
4. 한국독립당 : 중경 임시정부의 수권정당이다. cf> 1930년대 중국 관내에서의 조직도 있다.
5. 조선신민당 : 남조선 신민당을 의미한다. 백남운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의 공산주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6. 민족혁명당 : 1935년 중국 관내에서의 연합 조직이다.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참여하였다.

6.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남한 | 북한 |
|---|-----------|------------|
| ① | 제주 빌레못 유적 | 상원 검은모루 유적 |
| ② | 공주 석장리 유적 | 웅기 굴포리 유적 |
| ③ | 단양 상시리 유적 | 덕천 승리산 유적 |
| ④ | 연천 전국리 유적 | 평양 만달리 유적 |

정답 및 해설> ②

* 구석기 유적지 정리

(1) 최고(最古) 유적지

: 충북 단양 금굴(1983 발굴,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상한선을 약 70만 년 전이라고 설정하는 계기)

(2) 최초(最初) 발굴 유적지

㉠ 전체 - 함북 종성 동관진(1933, 일제시대 일본 학자들이 부정)

㉡ 북한 - 함북 웅기 굴포리(1960, 해방 이후 북한 최초)

㉢ 남한 - 충남 공주 석장리(1964, 해방 이후 남한 최초)

(3) 최초 인류 화석 발굴 유적지

㉠ 전체 -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1972, 한반도 최초 인류 화석 발굴)

㉡ 남한 -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1984, 남한 최초 인류 화석 발굴)

(4) 특징적인 유적지

㉠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1976, 어린이 2명의 완전한 뼈 발견<홍수아이>)

㉡ 평양 만달리 동굴(1979, 25~30세 남자의 머리뼈 1점과 아래턱뼈 2점 발굴)

㉢ 경기 연천 전곡리(1978, 모비우스 학설 부정)

㉣ 충북 단양 수양개(1983, 아슐리안계 주먹도끼와 스펀지돌 발견)

(5) 그 외 유적지

: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1966), 충북 제천 점말 동굴(1973), 제주 빌레못 동굴(1973)

7. 통일신라시대 귀족경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이것을 폐지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한편 일정한 양의 곡식이 세조(歲租)로서 또한 주어졌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①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②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 있었다.

③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④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농민인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②

이것은 ‘녹읍’을 말한다. 녹읍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징발권도 지급하였다.

① 왕토사상은 삼국시대부터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다. 제도적으로 보자면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할 때 왕토사상에 입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삼국 통일 이후 국가에 공을 세운 자에게 지급한 것은 식읍이다. 그리고 육두품에게만 특별히 지급된 것도 아니다.

④ 신라의 민정문서에 의하면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농민이 공동으로 경작한 토지는 마전이다. 그리고 양인농민을 의미하는 백정은 고려시대의 개념이다.

문 8. 다음과 같은 풍속이 행해진 국가의 사회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들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삼국지 동이전 -

- ①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훈의 실례를 보여준다.
- ②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 ③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 ④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국왕이 중국식 혼인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제시된 사료는 고구려의 서옥제이고, 국가는 고구려이다. 김흠운은 신라의 귀족이며 김흠돌의 동생이다. 신문왕은 김흠돌 모역 사건 이후 김흠돌의 딸인 비를 폐출시키고, 김흠운의 딸을 새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김흠운의 딸이 왕비가 되었다는 선택지의 문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신라시기의 일이다. 왜냐하면 고구려 귀족의 성씨에서 김씨를 배운 적은 없을 것이다. 김씨 성은 신라의 왕족, 귀족의 성씨이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 이후 중국식 왕명을 사용한 사실을 보더라도 무열왕 이후 왕가에서 중국식 혼인제도를 수용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신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④번을 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 ① 고국천왕은 고구려 왕이고 고구려에는 취수훈이 일반적이었다.
- ② 태조왕 이후 계루부 고씨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면서 연나부(절노부)가 왕비족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동천왕 시기로 고구려도 부여와 동일하게 여자의 질투죄를 중형으로 처벌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9. 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
- ②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었다.
- ③ 실형주의(實刑主義)보다는 배상제(賠償制)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
- ④ 기본적으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의 4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답 및 해설> ①

고려의 형률 문제이다. 고려에서는 중국의 당률을 창작한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습법을 따랐다.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게 법률을 조목별로 적은

을문을 만들기도 하였다.

- ② 조선시대까지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갑오개혁 이후 사법권이 독립되었다.
- ③ 동(銅)을 납부하고 처벌을 면제받는 수속법(收贖法)을 한 때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고려의 법률은 실형주의(實刑主義)를 우위에 두고 실행되었다.
- ④ 고려의 형벌은 태·장·도·유·사의 5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0. 고려시대에는 귀족·양반과 일반 양민 사이에 ‘중간계층’ 또는 ‘종류층’ 이라 불리는 신분층이 존재하였다. 이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는 내료직(內僚職)이다.
- ②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 ③ 서리는 중앙의 각 사(司)에서 기록이나 문부(文簿)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하였다.
- ④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④

고려시대 향리는 호족출신 향리와 하층 향리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호족출신 향리는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이 있어 과거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하층 향리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말단 행정직으로 지역의 세습과 외역전을 지급받았다. 현종 때 향리 자체의 과거 응시를 허용하는 주현공거법을 시행한 점이나 신진사대부가 향리의 집안에서 주로 배출된 점을 보더라도 향리의 신분상승의 기회는 열려 있었다.

11. 밑줄 친 ‘국왕’ 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 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 라고 하였다.

- ①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 ② 명예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④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③

자료는 정조에 관한 내용이다. 탕평과 만천명월주인옹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정조 : **신규 준장**은 수원에서는 **초서 대령**이었다.

신해통공, **규장각**, **준론탕평**(남인, 소론, 일부 노론 계열의 시파 중용), **장용영**, **수원 화성 축조**(화성 행차, 한강주교·거중기<정약용>), **초계문신제**, **서얼허통**, **대전통편**, **수령 향약**

- ① **숙종** : **경기잡에** 출마했던 **장인**은 **금융**을 타고 **백두산**에 가서 **상당한 휴식**을 취했다.

한국정치(경신·기사·갑술), 장희빈, 인현왕후, 금위영, 안용복(울릉도·독도), 백두산정계비, 상평통보, 박세당(색경), 윤휴(북벌론)

② 효종 : 북벌 추진(어영청 중심), 나선정벌(2차례), 농가집성(신속), 하멜

④ 영조 : 완균(왕규는) 좌천되어서 원산에 갔는데, 속도위반해서 중신형이 되었다.

즉위 당평 교서, 완론당평(노론 참여 당평파, 당평비), 균역법, 이인좌의 난(무신란, 소론과 남인 강경파), 이조 전랑 자천권 폐지, 서원 정리, 산림 인정 없음, 속대전, 사도세자 사건(임오화변), 노비중모법, 신문고 부활, 형벌제도 개선(압של형, 자자형 폐지)

1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왕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중략)…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고려사 -

- ①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③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원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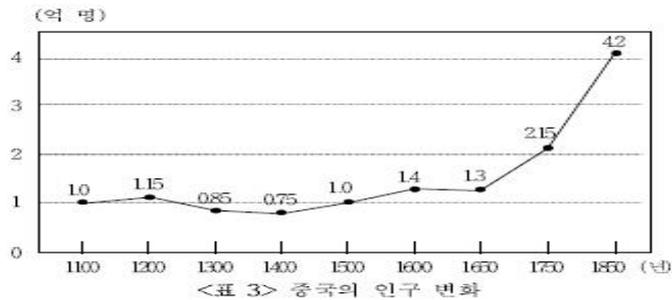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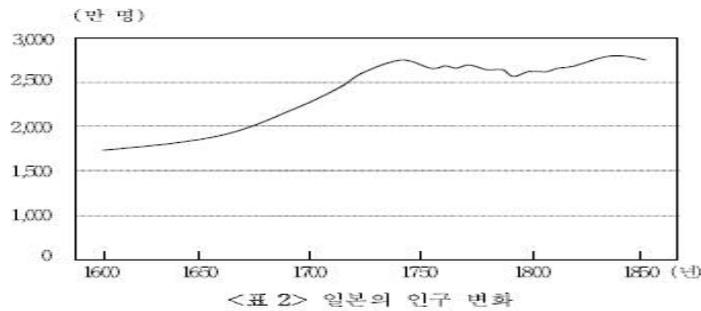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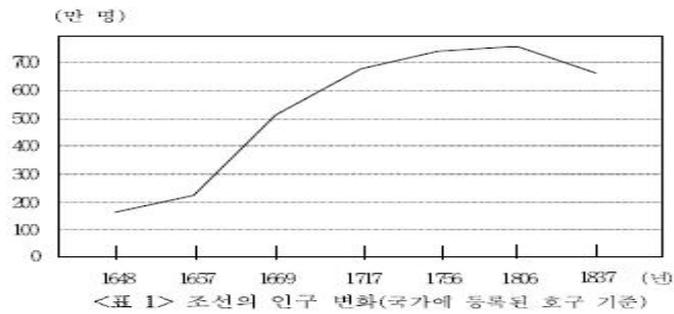
정답 및 해설> ②

제시된 사료는 공민왕 때의 것이다. 공민왕은 적극적인 반원자주정책을 실시하였다.

- ① 장례원은 조선시대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하였던 관서로 조선 세조 때 설치되었다.
- ③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때 김중서의 주도하에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병법서이다.
- ④ 과전법은 1391년 공양왕 때 실시되었다.

13. 다음은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이었다.
- ② 명대 초기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는 청대 초기 3억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중반에 4억 2천만 명에 이르렀다.
- ③ 17세기~18세기 초반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정답 및 해설> ③

자료 분석형 문제이다. 자료 분석형 문제는 주(어)부와 (서)술어부를 구분하여 팩트를 대조하면서 풀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 자체의 어려움보다 문제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자료 분석형 문제일수록 답은 자료 속에 있고, 문제는 쉬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모두 17~18세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삼국이 모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기술 발달과 농경지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 -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인구 증가폭은 감소한다. 19세기에 들어오면 전국적인 수해와 콜레라의 유행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② 명의 건국을 모르겠으면 고려 말·조선 초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14세기 후반, 15세기 초로 잡고 문제 풀어도 된다. 그때 중국의 인구는 1억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나라의 탄생은 조선의 정묘·병자호란을 떠올려 보라. 17세기 상황이 아닌가. 17세기의 중국 인구는 1억 초반이다.

④ 일본은 17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4.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 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 ②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 ③ 윤희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①

제시된 글은 세종 때의 농사직설에 관한 것이다.

- ① 몽유도원도는 세종 때 화원이었던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 ② 지눌 : 고려 무신집권기
- ③ 숙종 : 17세기 상황으로 송시열이 윤희를 사문난적으로 제거하였다.
- ④ 조선 후기

15. 밑줄 친 ‘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움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움을 옮겼다고 한다.

- 고려첩장(高麗牒狀) -

- ①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 ② 최충헌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정답 및 해설> ①

진도로 도움을 옮겼다는 내용이나 몽고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한다는 점을 보아 진도에서 대몽항쟁을 펼쳤던 삼별초의 사료이다.

- ① 삼별초의 시작은 최우가 도적을 잡기 위해 만든 야별초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분화·확대되었고, 몽고의 포로였던 사람들로 구성된 신의군이 포함되어 삼별초가 되었다.
- ② 도방
- ③ 광군
- ④ 공민왕 때의 일로 삼별초와는 관련이 없다.

16.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 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 비변사등록 -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였다.
- ②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③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④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②

제시된 사료에서 ‘가산’ 지역이나 ‘청천강 이북’ 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1811년 순조 때 발생한 흥경래의 난을 설명하고 있는 사료이다.

- ① 동학은 철종 때인 1860년에 창시되었다.
- ②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인 1801년의 일이다.
- ③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고종 때인 1866년의 일이다.
- ④ 삼정이정청 설치는 철종 때인 1862년 임술농민봉기 때 설치되었다.

17.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②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 상(喪)에 유교 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권상연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 ④ 신유사옥 때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정답 및 해설> ①

- ① 정약전은 신유사옥(신유박해, 1801)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

천주교는 17세기에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신앙이 아닌 서학 차원에서 소개되었다. 학문의 대상이었던 천주교가 경기 남인(성호 좌파) 계열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이후 주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이승훈 베이징에서 최초로 영세 받음 ㉡ 추조적발사건(정조, 1785, 김범우가 집에서 예배를 본 사건) ㉢ 반회사건(정조, 1789, 이승훈, 정약용 등이 성경 강습) ㉣ 신해박해(진산사건, 정조, 1791, 진산의 윤지충이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사형됨) ㉤ 신유박해(순조, 1801, 남인 시파 탄압 목적, 이승훈·이가환·정약중·청 신부 주문모 사형, 정약전·정약용 유배, 황사영백서사건 발생) ㉥ 기해박해(헌종, 1839, 정하상·프랑스 신부 모방 등 사형, 오가작통법·척사윤음 발

- 표) ㉠ 병오박해(헌종, 1846,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순교) ㉡ 병인박해(고종, 1866, 프랑스 신부 9명·남종삼 등 처형, 병인양요 발생)
- ② 안정복을 중심으로 하는 성호우파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고, 정약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호좌파는 천주교에 대하여 관대하였다.
- ③ 신해박해·진산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 ④ 신유박해 때의 황사영백서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18.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이황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 ③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과,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답 및 해설> ③

18세기에 노론 집권층 내에서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충청 노론(호론)과 인물성동론을 주장하는 서울 노론(낙론)에 의한 호락논쟁이 벌어졌다.

- ① 정도전은 『주례』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중요시하였다.
- ② 이이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다.

19. 다음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세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 ①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 ②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 ③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정답 및 해설> ④

제시된 사료는 3.1운동에 관한 것이다. ④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사람은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다. 1919년 1월에 출발, 3월 13일에 도착하였는데, 이 와중에 3·1운동이 발

발하였다. 김규식은 파리에 도착하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 국제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제도 1차 대전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김규식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20. 4 · 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 · 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 ②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답 및 해설> ④

1960년 4 · 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 과도정부가 세워졌다. 이후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① 5 · 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된 것은 1948년이다.
- ② 농지개혁법은 제헌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학생과 일부 정치인들은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였으며, 장면내각은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하였다.

이 기 봉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한국사 전공)

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원

(교과부, 학술진흥재단 공동 지원)

전. 대성학원

현. 한국고시학원 한국사 전임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